

十
‘서신원’은
‘서울성경신학대학
원대학교’의 준 말
임

<4월호>

월간 서신원

제 4 호(vol.1-4)
편집인: 장석조 교수
발행인: 권호덕 총장
발행일: 2015 04 30
발행소: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총장 칼럼>



교회 공동체와 나

권호덕 총장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의 교제하는 유기체라는 점에서 교회의 한자어는 원래 ‘교회(交會)’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자는 ‘교회(敎會)’이다. 아마 고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네스토리안 경교(景敎)가 당나라 때 중국에 전래되어 그 교인들이 매일 성경공부 하는 모습을 중국인들이 보고, 그 공동체를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기독교는 어디를 가나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계몽이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책의 종교인 기독교는 이상숭배 종교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런 ‘敎會’ 명칭은 교회의 본질을 제한시키는 흠이 있다. 교회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 이상의 중요한 내용을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적 차원에서 각자 영적인 주소를 인식하게 되고 각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일까? 기독교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의 일반 종교 공동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이 세상의 고등종교들은 모두 교조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 유교는 공자 등 유가들의 가르침, 모슬렘은 마호멧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 공동체로 형성되었지만, 단순히 그 가르침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을 이 시대에 부각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만일 기독교회 공동체가 다른

종교 공동체와는 달리 독특하다는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 절대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우상들 사이에서 상대화되어 버린 나머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불경(不敬)인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하나님의 교회의 독특성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유일성과 탁월성을 배우고 확인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통교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나머지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주위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답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이단들도 자기들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명칭으로 명명한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는 교회 풍토가 혼미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교회론에서 특별하게도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논했는데 그 만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회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가 건전한지 않는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기존 정통 교회들도 자기들의 교회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점검하는 기준도 교회의 속성에서 알아 볼 수 있다.

교회의 속성은 고대 교회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이나 기타 여러 신조에 포함되어 있다.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속성으로 ‘거룩한’(sanctam)과 ‘보편적 내지 우주적’(catholicam)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편적’ 교회는 우리말 번역에는 ‘공교회’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에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 고백한다. 17세기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은 ‘영원한’이라는 특성을 첨가했다.

요컨대, 교회는 1) 통일성, 2) 거룩성, 3) 보편성, 4) 사도성, 5) 영원성 등 다섯 가지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현 시대의 교회 상황을 바라다보면서 이런 속성들을 설명하며 참된 교회로 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하는 것이다.

<세상소식>

월드비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의 목소리” 전해 와

국제구호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네팔 대지진 발생 11일째인 5일 네팔 긴급구호 활동을 하면서 만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은 네팔 대지진 진앙지 고르카에서 차로 6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4일(현지시간) 칼파나(10)를 만났다. 칼파나는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더니 집안의 모든 물건이 떨어졌다”고 지진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집이 무너져 다리가 잔재에 깔렸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왔지만 다리는 부러진 상태였다. 칼파나 집뿐 아니라 마을 대부분의 집들도 무너져 내려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구급차로 고르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사흘이나 걸렸다.

칼파나는 가까스로 구급차에 타 병원에 도착했지만 침상에 올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병원에는 50개의 침상뿐인데 20만명의 부상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현재 칼파나는 병원 바닥에 임시로 침상을 마련해 치료를 받고 있다. 칼파나는 긴급구호팀에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책과 학용품이 무너진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슬퍼요. 친구들은 모두 무사할까요? 지진으로 학교도 모두 무너져 버렸는데,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고르카의 마을에서 구호물자 담요를 받은 시아(7)는 이제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 (월드비전 제공)

같은 날 긴급구호팀이 카트만두 월드비전 아동쉼터에서 만난 12살 소년 라제쉬는 “지진 당시의 충격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무섭다”고 했다. 이곳에서 라제쉬는 친구들과 뛰놀며 지진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아주 나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있

으면 나쁜 기억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려서 즐거워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죠?”(라제쉬)
월드비전은 네팔 대지진 직후 재난 지역에 시급한 방수포, 담요 등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동시에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치료를 위한 아동쉼터를 개소했다. 카트만두를 시작으로 라릿푸르, 박타푸르 등 7곳에 아동쉼터가 열렸으며 앞으로 2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일부터 나흘간 네팔을 다녀온 강도욱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은 “온 건물과 길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며 지진 피해 상황을 전했다. 그는 “뚫고 있는 잔해 밑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도 느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02-784-2004·worldvision.or.kr).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15 05 06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처처에 지진, 기근, 전쟁 등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다. 지금 지구 전체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을 보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졌음을 인식하고 경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저들을 돕는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6.25때 우리 나라에 쌀을 보냈다. 그들과 종교가 다르지만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저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 속에 사랑의 지체가 활성화 될 것이다.

<교계소식>



살롬나비, 2015년 어린이날 논평서

어린이들은 그 본연의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자라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린이들이 그 본연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이 부당한 대우에서 해방되어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념하는 날이다.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기념식을 가진 이후, 광복 후에는 5월 5일을 지정하여 이 날을 기념하여 왔다. 해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어린이날에는 고궁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무료 공개되고 어린이를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다. 어린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책임 있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지표로 어린이 헌장이 1957년 공포되고 1988년 새로 제정되었다. 11개 조항의 어린이 헌장의 주요취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소질과 잠재력이 개발되도록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창조적인 문화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날 이전에 비해 어린이의 인권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을 안타까움으로 보게 되고, 또 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유해한 사이버환경으로 어린이들의 정서와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을 우려하게 된다. 살롱나비는 미래의 국가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으로서의 어린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어린이들은 그 본연의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자라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2. 어린이들은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한다.
4. 한국사회와 교회는 어린이들이 그 본연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소파 방정환 선생 상(像)

<교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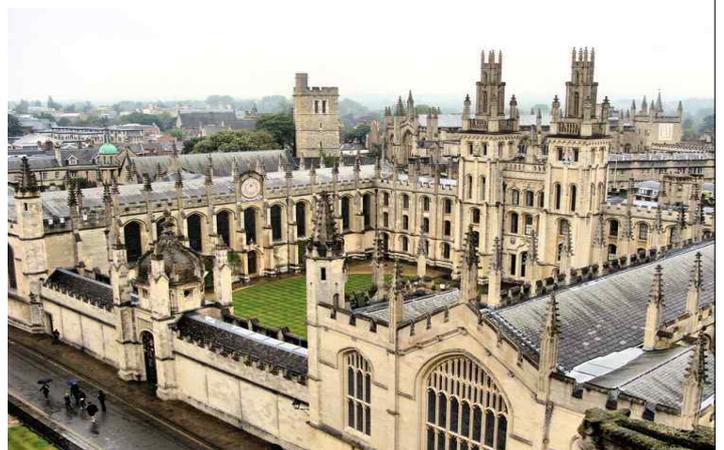
1. 본교를 위해 장학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루디아 장학회' 수련회가 팀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장학회 임원단은 영암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 임원단: 회장: 김경순; 부회장: 오동훈; 서기: 김미란; 부서기: 홍미림; 회계: 황영숙; 부회계: 유순옥; 봉사부장: 김명숙; 봉사부부장: 박옥선, 이종배.
 - 주제: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강사: 오성은 목사(대흥교회) 오성은 목사님은 삼위 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강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촉구했다.

개회예배에는 총회장 권정희 목사님이 설교했고, 김수현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했다.

<학교소식>

1. 보강을 전제로 하고 5월 4일은 휴일로 정하고 토, 일, 월, 화 연휴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
2.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스승의 날 행사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카네이션과 선물로 스승들에게 사랑을 표시했다.
3. 2015년 4월 25일(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거행되었다. 본교 교수들도 많이 와서 학문적인 잔치에 참여했다.
4. 5월 9일에는 장로회신학대학에서 "한국개혁신학회"가 '춘계 이종성 박사의 삶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교 교수 가운데 이동영 교수는 이종성박사의 삼위일체론을 비판적으로 발표했고, 배춘섭 교수는 선교학 분야에서 백석대 장훈태 교수의 논문을 논평했다.
5. 권호덕 총장은 4월 17일 10:00-14:00 '대학원대학교 총장회의'에 참석하여 당면한 '대학원대학교' 문제를 논의했다. 이 날 입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원대학교'가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건의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인체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함.
6. 정기적으로 대학특성화, 중장기 발전위원회 모임을 가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건물 일부

<레위기서 강해>

레위기 제 3장 주해

-화목제-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화목제(和睦祭, Peace Offering)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다. 화목제는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린다. 본장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화목제는 “보답하다, 배상하다, 속죄”를 의미한다. 화목제는 평안제, 수은제라고도 부른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는 제사이다.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에 드리는 번제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

2.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

첫째, 감사제(感謝祭)이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던 축복과 구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제사이다(레 7:12-15; 22:29-30). 둘째, 서원제(誓願祭)이다. 이것은 서원의 성취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이다(레 7:16-19; 22:18-25). 셋째, 낙헌제(樂獻祭)이다. 이것은 축복, 구원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다(레 7:16-18; 22:18-25).

3. 화목제의 세 가지 제물

화목제물은 번제물과 같은 종류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이다. 제물에 관한 법규가 비슷하지만, 생략하지 않고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절차와 형식이 모두다 귀중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흠없는 수소나 암소(1절); 소는 인내와 충성을 상징한다. (2)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6절); 양은 순종과 겸손을 상징한다. (3) 염소(12절); 배척과 멸시를 받으며 마침내 버림받을 것을 상징한다.

4. 화목제의 절차

(1) 제사장은 제물을 잡은 후에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2절). (2) 콩팥과 그 기름, 간에 덮힌 꺼풀은 단 위에 불사른다(4-5, 14-15절). (3)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제물이 취한다(레 7:29-34; 10:14). (4) 제물의 일부는 제물을 바친 자가 성막 앞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레 7:15). (5) 제물은 삼일 후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제물을 삼일 후에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는다. 그 제물을 먹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레 7:18).

5. 화목제의 특징과 드리는 시기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레 7:15), 자원의 제사(레 7:15-16), 기쁨의 제사(신 27:7)이다. 화목제의 제물은 암수를 구별하지 않았다(레 7:1.6).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상호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데 의의가 있다(신 12:17-18). 화목제는 국가적 경축행사가 있을 때에 드렸다. 여호와와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삼하 6:15-19),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왕상 8:63-64), 화목제를 드렸다.

6. 화목제와 번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첫째, 같은 점은 피를 뿌린다는 점이다. 화목제도 번제처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은 후에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다(2,8,13절). 제물의 피와 하나님과 화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화목제가 성립되지 않는다(히 9:22).

둘째, 다른 점은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번제물은 반드시 생축의 수컷이어야 한다(레 1:3,10과 3:1,6을 비교하라). 번제의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화목제에서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남녀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교제로 화목할 수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7. 화목제를 드릴 때에 주의사항

첫째, 기름은 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3절).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기름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물은 이틀 안에 나누어 먹어야 한다. 제사 후에 고기는 거두어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온 식구가 모여 즐겁게 먹었다. 제물을 먹는 장소는 각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이 함께 먹어야 했다(신 12:17-19). 이것은 오늘날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배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교통이고, 수평적으로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위한 만남의 장소이다.

<지상(紙上)설교>

더 큰 믿음, 더 큰 역사!



전충현 목사(동천교회)

누가복음 17:1-10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회적 약자, 즉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촉구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2절) 이 말씀의 결국은 우리 주변에 더 이상 실족하는 이가 없었으면 좋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화 한 통이 그리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걸 그리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전화 한 통화! 여기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우리는 실의에 빠진 어느 한 생명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심입니다. 여기 이 관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실족하는 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무관심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3-4절) 이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는 거의 날마다 좌충우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제목의 책을 쓴 프레드 러스킨에 의하면 그것은 ‘평화의 느낌’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평화의 느낌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어진 채로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를 결심하는데 용서가 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고기처럼 먹어본 사람, 말하자면 용사도 받아 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를 받아 본 사람들 이지 않나요? 언제? 우리가 언제 이런 체험을 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들었을 때! 바로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용서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기 이 예수님의 용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들이 믿음을 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 이것이 나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이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더 이상 실족하는 이가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우리, 더 큰 믿음을 구하자고요. 여기 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역사의 주역이 되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강해>

평신도를 위한 요한복음산책(2)



이재성 교수(Ph.D., 신약학)

계속되는 나의 이야기

1) 요한복음의 구조는 조금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다.

프롤로그(1:1-18), 본문(1:19-20:31), 에필로그(21:1-25)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앞으로 전개될 본문 전체를 미리 보게 해 주는 축소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브라운(R. E. Brown)은 프롤로그의 중요성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요한복음을 신약성경 문헌들 가운데서 가장 값진 진주라고 말한다면, 그 중 프롤로그는 요한복음 가운데서 진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Vol. I., 18.). 또한 호스킨스(Hoskins)는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복음서의 머리말이 아니라 복음서의 요약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더해 스몰리(Smalley)는 “요한복음의 첫 장은 전체적으로 제4복음서 전 장의 축소판인 것 같이, 아니 그 복음서와 관련된 전체 구원 역사의 흐름을 요약한 것 같이 보인다”(Stephen S. Smalley, *John Evangelist & Interpreter*, 김경신 역, 『요한신학』(서울: 생명의 샘, 2004), 143.)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 대해서는 수 많은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2) 그러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을 말한다. 이는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 요한복음 20장 30-31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요한복음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통합되는 히브리 문학의 전통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1:19-20:29)에서는 요한의 기록목적과 프롤로그를 통해 선언한 그 사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로 나타났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모델하우스라면 본문은 그 설계도와 모형대로 어떻게 완전한 실체가 이 땅에 드러났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과 성취가 하나가 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구조의 아름다움이다.

3) 그렇다면 21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에 해당된다. AS라고나 할까, Recall Service라고나 할까! 좌절하고 실망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종결된다. 요한은 프롤로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되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본문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는 20장 30,31절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밝힘으로 모든 그의 글을 마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에필로그는 다소 생뚱맞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21장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은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런데 너무 심한 과장이 아닌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연수가 33세, 이것을 분, 초 단위로 기록한다 한들 어찌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며 끝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에필로그인 것이다.

베드로! 그는 누구인가?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요한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른 새벽, 디베랴 바닷가까지 실망한 베드로와 동료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결국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속에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며, 그것이 요한복음이 에필로그를 통해 제공하는 멀리가는 향기, 은은한 감동, 가슴 벅찬 희열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결국은 그 복음서 끝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또 다른 베드로로 오늘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수 밖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살



이종운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서울교회 원로목사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사회에서 자살자가 급증하여 2003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추월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 평균 43.6명, 33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면 나도 자살하겠다는 풍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반(反)비례하여 정신적 황폐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나,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교회 지도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종교가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교회마저 성장병(病)에 걸려 해매는 중에 개개 영혼의 소중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이다.

교회는 자살자나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싸매주기보다 비난과 정죄부터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을까 하는 동정의 마음보다는, 자살자는 지옥 간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랑 없는 도덕적 훈계와 율법주의적 정죄를 일삼아왔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자살자를 불신자(不信者)로 단정하고 정죄하면서 장례식 집례도 꺼린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거나 위로하기보다 불신자로 속단하고 지옥자식으로 정죄한다. 교회는 외적(外的)으로 나타난 증상만 보고 내면의 심층적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 자살이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께 대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살 방지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는데, 자살자는 고해성사를 할 수 없으니 지옥으로 갔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즉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죽음의 양태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증거라 할 수 없다. 죽기 전 회개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돌연사로 회개를 미처 못한 죄를 안고 죽는 경우가 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본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에서 제외시키거나 보류 또는 연기시키지 않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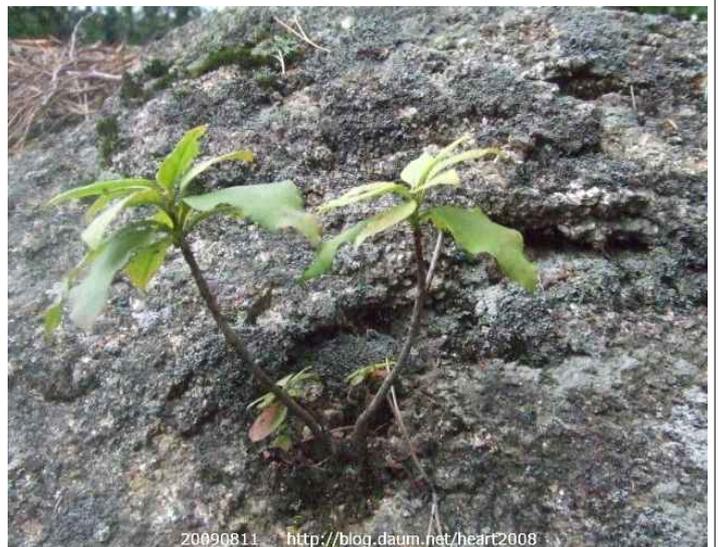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비록 자살자라도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살과 구원이 관계없다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잘못하면 자살을 충동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자의 90%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비판이나 저주보다는 예방과 치유 차원에서 목회자나 교회의 돌봄과 책임이 있다.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종교가 무력화됨에 따라 생겨나는 사회병리 현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 능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삼손, 사울 왕, 아히도벨, 시므리, 가룟 유다 등의 자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뚜렷한 가치판단이나 가르침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자살을 죄악으로 본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가 하면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했으나 구원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은 루터가 있고,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한 칼빈도 있다.

인생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케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살아야 한다. 자살은 궁극적 구원에 연계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

futurekorea@futurekorea.co.kr



<조직신학>



하나님은 누구신가? (4)

이동영 교수(조직신학, Dr. theol.)

1. 말씀의 신학이나, 경험의 신학이나?

성경계시가 형성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신현'^{Theophania}과 '행위'^{opera}와 '말씀'^{verbum}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때에 인간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계시를 계시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 성경계시가 형성되던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계시경험'^{Offenbarungserfahrung}은 구분할 수 있어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 계시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임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 개념'^{relative Begriff}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현과 행위(이적)와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지자나 사도들의 인간적 경험을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시'^{Offenbarung}와 '경험'^{Erfahrung}, 이 양자를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분리시켜서 양자택일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유다 벤 일라이^{Judah ben Ilai}는 극단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불과 얼음 중 하나를 택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한 길로만 간다면 불에 의해서 불탈 것이고, 다른 한 길로만 간다면 얼음에 의해서 얼어붙을 것이다.¹⁾

그러니 '계시신학'^{Offenbarungstheologie}이 맞느냐 '경험신학'^{Erfahrungstheologie}이 맞느냐의 문제를 설정해 놓고 양자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은 진리의 한 면만을 고집하는 극단적인 논리이고,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계시)이 필요하지만 또한 여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학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의식하고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는 '특별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적 사색'과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하나님 인식'^{cognitio Dei}과 '하나님 지식'^{scientia Dei}의 내용들은 경험적 국면들을 함의하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자체가 우리의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일정 부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위스 취리히대학교^{Universität Zürich}에서 가르쳤던 20세기 신학의 거장 중 한 명이었던 게르하르트 에벨링^{Gerhard Ebeling}이 어디에선가 지적했던 것처럼, 신학의 원리에 있어서 계시(말씀)^{Offenbarung}나, 경험^{Erfahrung}이나를 지나치게 나누어 대립시키는 것은 진리의 총체적 인식에 도달할 수 없는 양극단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 함에 있어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principium obektivae}로서 '하나님의 말씀'^{verbum Dei}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여 사색할 때에,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역사하사 그것들을 '조명'^{illuminatio}하시는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illuminatio Spiritus sancti interna}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Objektiv}과 '주관'^{Subjektiv}, '계시'^{Offenbarung}와 '경험'^{Erfahrung}이 만나고 통합되는 곳에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 인식과 참다운 신학의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지난 세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에서 가르쳤던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릿 베르까우어^{Geritt Cornelis Berkouwer, 1903-1996}는 하나님을 인간 및 세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성경계시에 의존하는 인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경험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인식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식^{Gotteserkenntnis}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상관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서 성경을 읽고 사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계시에 의존하여 사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색 속에 우리의 경험이 들어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말씀과 경험을 너무 날카롭게 나누어서 극단적으로 말씀이나, 경험이나의 양자택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경험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생동감 있는 신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경험을 두부 자르듯이 양자택일로 몰고 가는 것은 신학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특별계시에 의존하는 사색을 통해서 신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사색 속에는 우리의 경험이 들어와 있기 마련이니까요.

말씀의 신학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신앙체험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그러한 신학적 오류를 우리는 바르트^{Karl Barth}에게서 만나게 되는 반면, 인간의 신앙체험만을 강조하고 말씀을 배제하는 그러한 신학적 오류를 우리는 슈라이어에르마하^{F. D. E. Schleiermacher}에게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 우리의 경험은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만 한다

말씀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논리적 순서로는

말씀이 먼저고 경험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씀과 경험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경험(체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종종 자기 기만적이며, 심지어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Wien} 태생으로서 20세기 언어철학과 분석철학의 비조로 군림했던 위대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J.J. Wittgenstein, 1889-1951}은 자신의 저서 『논리철학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신학의 객관적인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왜곡시키고, 해소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경험을 배제한 채 말씀의 객관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차디찬 지성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삶의 정황 사이에는 해석학적 순환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경험이 해석학적 순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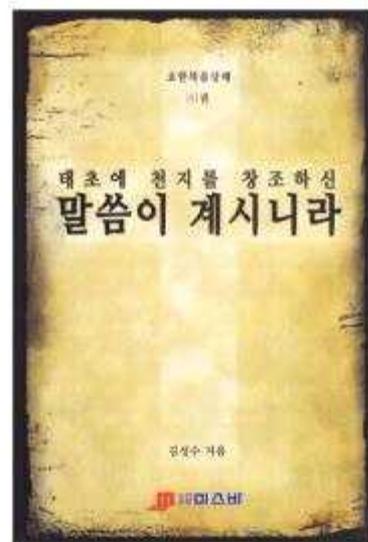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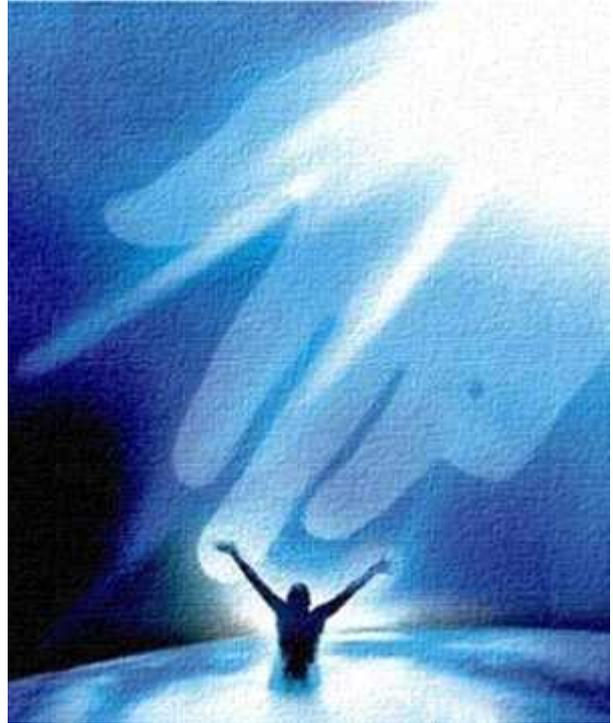
3. 성령의 내적 조명을 기도으로써 간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살아있는 신학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서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신학을 하는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조명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겸손히 신학 작업을 수행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여 말씀과 경험을 날카롭게 나누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양자택일의 논리로 몰고 가는 것은 신학을 빈곤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과 우리의 삶을 가교하고자 하는 모든 해석학적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이 ‘성령의 내적 조명’^{illuminatio Spiritus sancti interna}과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를 기도으로써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여 신학은 오직 신앙의 행위로서만 가능하고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인 것이지요.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신대원 학생들 사역>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기성 교회의 사역자로서도 일하지만 아래와 같은 복지 재단에서도 일하고 있다. 야간 2학교 최규진 전도사는 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아래 사진은 광야교회 담임목사 모습이다.

“사단법인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홈페이지 : www.kwangya.org, www.sagilsa.org 문의전화 : 02-2636-3722>



“사단법인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은 1987년부터 영등포 쪽방 촌에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자활·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힘써 온 광야교회를 모태로서 2015년 2월 22일에 사단법인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주무관청의 법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광야교회를 중심으로 무료급식과 노숙인 자활시설 및 쪽방상담소를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1987년부터 영등포 쪽방 촌에서 쪽방주민들(현재 500여명)과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다. 노숙인 쉼터에서는 80여명이 공동체생활을 하며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쪽방상담소를 통해 쪽방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명희 목사는 87년도 4월 우연히 청량리 역에서 한 노숙인을 만난 약속으로 찾은 곳이 영등포 환락가 창녀촌이 있는 청소년 금지 구역으로 전과자. 부랑아 도피범죄인. 기동 서방. 마약중독. 알콜중독. 도박중독. 야바위 패거리. 폭력. 살인이 난무하는 우범지역에서 3평의 교회를 세우고 출발 하였습니다.(생략)

[광야교회의 주요 사역]

- 매일 3끼 무료식사 (하루 1200 ~ 1500인)
-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예배와 복음전도사역 (매일 11시 예배/ 자정12시 역전 전도예배/금요일 역전 찬양전도 집회/토요 동네 찬양 전도.한 마디로 복음전과와 사랑 실천이 교회의 주된 사역 입니다.
- 무료진료 (서울 대학병원 기독 신우회, 아사모 침/안마봉사)이. 미용봉사. 의료지원 진료. 입원치료.
- 쪽방주민 상담 및 실태조사, 주민등록복원. 노숙인 장례 (현 200 여명을 넘었습니다)등...
- 기초 생활보장 상담, 장애인등록 /노인 치매 요양간병 사업.
- 사랑의 쌀 나누기, 가옥수선, 도배봉사
- 샤워실, 세탁실, 의류실 노숙인 커피숍 쉼터와 동네주민을 위한 “사랑방” 운영
- 취업알선사업/ 각종 자격증 교육/ 교육 (노인한글학교. 노숙인 중/고등. 검정고시. 사회 복지사 양성 등)
- 사랑의 결연운동(1:1,결연) 독거노인 과 쪽방 촌 주민, 쪽방 촌 주2회, 밑반찬 제공사업

- 무료합동결혼식. 2014년 현재14회째 50여 쌍 결혼 (신혼여행. 주거주택 보조비 지원)

- 광야인의 날(전국 노숙자초청/ 말씀 선포. 전도 / 잠바 나눔/ 믿음의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식사대접)

광야교회의 표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이다. 실제로 “광야교회”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운영됩니다. 이에 준하는 “5대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실천사항은 어떤 신학적인 사변이나, 공헌한 교리 논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광야교회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고, 또 실제로 광야교회의 대.외 적인 영향력과 달리 교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광야교회 실천사항>

첫째, “주다가 망하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망한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망하심으로 우리는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끝없이 주자는 의미입니다. **둘째,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입니다. 주님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쪽방동네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하기 어려운 꼴통들(사람들)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버티기를 잘하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없어도 참고 버티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 하리”라는 자세로 합니다. 또한 노숙인들 및 쪽방주민들은 대체로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여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큼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멈추지 마라”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이 모든 사역은 기도로만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후원 :

국민은행 014-01-0927-497 예금주 : 광야교회>



‘노숙인 의료 돌봄’, ‘노숙인 장례’, ‘오병이어 무료급식’

<읍기 해석과 설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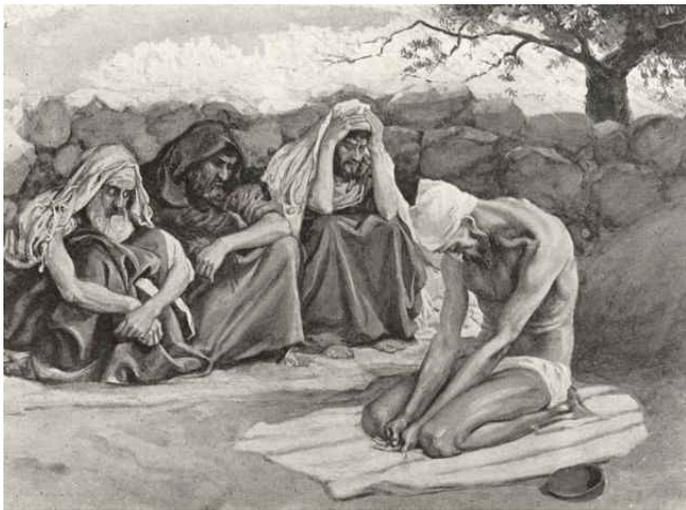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재앙”



박 영 준 교수(구약학, Dr.theol.)

하나님과 사탄의 첫 번째 대화 이후에 욥은 시험을 받는다. 이 시험은 욥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순수한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섬겼던 결과가 많은 재물과 행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지에 대한 것이다. 많은 복을 받은 욥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섬겼느냐(욥1:9, “까닭 없이”)는 사탄의 의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하신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1:12) 우선 욥은 그의 재산과 자식들을 잃는다. 1장 13절에서 19절에 걸쳐서 욥의 첫 번째 고난이 각각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묘사되어 있다.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네 재앙에 대한 묘사는 인간 재해와 자연 재해가 교차되어 묘사 되어 있으며(스바 사람, 번개, 갈대아 사람, 폭풍), 재난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천 마리의 소+오백 마리의 나귀, 칠천 마리의 양과 염소+종, 삼천 마리의 낙타+종, 자식들). 또한 특이한 점은 앞의 보고자가 그 재앙에 대한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다음 보고자가 보고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욥에게 고난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욥은 종들의 보고를 받는 중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종의 보고가 다 마쳐진 다음에야 비로소 이러한 네 개의 고난에 반응한다.



욥의 첫 번째 반응은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다. 겹옷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행사 때 입는 옷을 의미하며 찢었다는 것은 애도 의식을 나타낸다. 머리털을 미는 것 또한 고대 근동에서 흔한 비탄의 상징이었다. 앞의 두 가지 행동이 욥의 애도와 비통을 보여주고 있다면 나머지 두 개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 의식을 의미한다. 욥은 고난 중에도 침묵을 유지한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욥의 고백이 등장한다. 이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이고, 두 번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이다.

욥이 했던 첫 번째 고백에서 그가 모태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곳이 다시 어머니의 자궁은 아닐 것이다(요 3:4). 욥이 다시 돌아가리라고 했던 장소는 대지, 땅의 흙을 의미할 것이다(창 2:9; 욥 4:19-20; 시 103:14-16).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은 그의 경건이 그가 얻은 현세의 재물이나 자식의 복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장 8절의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욥의 고백은 전도서 5장 14절과 유사하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러한 전도자의 가르침은 인생의 허무함과 무익함을 직시하고 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디모데의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현세의 재물과 성공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현세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세 본문은 모두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현세의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앞서 봤던 욥의 고백이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이라면 욥이 했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인생이 즐겼던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손실과 슬픔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이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아래 이루어진다는 고백이다. 이와 같은 욥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은 이사야 45장 7절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욥이 얻었던 현세의 재물과 성공이 빛과 평안이라면 손실과 재앙은 어둠과 환난을 의미할 것이다. 결국 욥은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의인이었다. 두 개의 고백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욥의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현세의 성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재물과 손실의 모든 것에 대한 찬송이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욥의 행동은 적어도 현재 그가 매우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행동한다. 고난 중에 행한 욥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22절은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종합하여 보여 준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사탄은 앞서 1장 11절에서 장담하였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이러한 사탄의 장담은 어김없이 빗나갔다. 욥은 하나님을 욱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였다. 지금까지 보았던 재앙이 닥쳤을 때의 욥의 태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계속되는 고난 중에도 말을 아끼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욥의 모든 행동(잔치 날에도 재앙의 날에도) 뒤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신을 감췄던 것으로 알려진 성의에 찍힌 이미지로 예수의 몽타주를 만들어낸 후 여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보통 경찰이 오랜 기간 잡히지 않은 범죄자의 과거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데 쓰는 기술을 반대로 적용해 턱 사이즈를 줄이고 코를 똑바로 바로 잡는 등 노화의 흔적을 지웠다.

이러한 몽타주 제작과정은 현재 5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토리노 성의 전시에 맞춰 이탈리아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곧 방영될 예정이다.

인디펜던트는 그러나 이번 몽타주가 토리노 성의의 진위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과학 저널 네이처에 소개된 논문에서 탄소 측정 결과 성의 속 이미지가 13~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의가 가짜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입력 국민일보 2015-05-06 16:12 수정 2015-05-06 16:14)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예수의 얼굴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53장은 그의 얼굴이 불 모양이 없었다고 한다.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그림 시장에는 예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 그림이 과연 예수의 참 모습일까?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모습을 그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기복음서는 12살 예수가 총명하고 지혜로

우며 통찰력이 있는 소년으로 묘사한다. 소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됨을 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거룩

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외식자들에 대한 분노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런데 어떤 화가도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주님의 비하 모습이나 승귀하신 영화된 모습을 그릴 능력이 없다고 본다.

<조직신학 >

개혁신앙의 기초: 웨스트민스터

설교 메시지 개요와 흐름에 대한 제안

- 1) 욥의 첫 번째 고난(1:13-19)에 대한 의미(완전한 파멸, 커지는 재앙) 설명
- 2) 욥의 고난에 대한 태도(애도와 비탄, 하나님 경외와 예배) 설명
- 3) 21-22절에 나타난 재앙을 맞은 욥의 태도에 대한 신학적 의미 설명
- 4) 본문의 신학적 의도와 메시지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현세의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모든 것을 잃어도 욥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가?)
- 5) 가르침과 다짐(욥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

<허망한 시도>

열두살 예수는 어떻게 생겼을까...伊 경찰 몽타주 공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어린 시절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탈리아 경찰이 예수의 수의로 알려진 ‘토리노 성의’(聖衣)를 활용해 과학수사기법으로 만들어낸 예수의 12살 몽타주를 공개했다.

2004년 처음 만들어진 이 몽타주는 이탈리아 경찰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표준문서 해설(4)



김은수 교수(조직신학, Ph.D.)

개혁주의 장로교의 교리 표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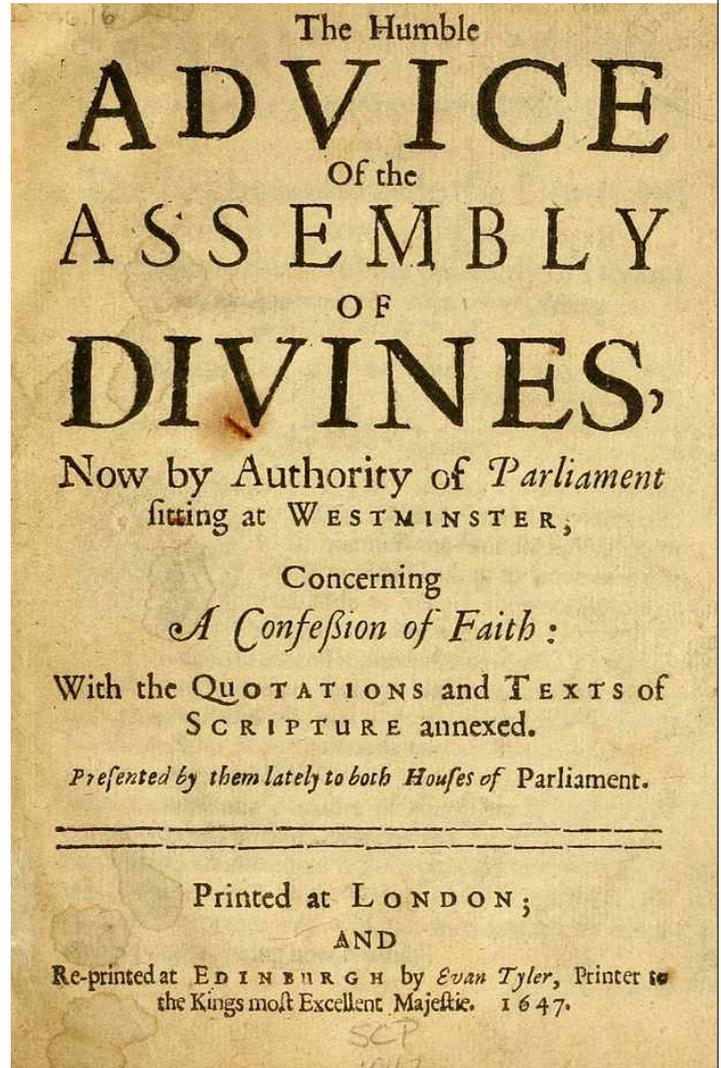
(1)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간략한 배경 역사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심히 부패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16세기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John Calvin, 1507-1564)의 헌신과 노력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놓여졌다. 나아가 그러한 칼빈의 신학적인 영향아래, 잠깐동안 제네바에 피신하였던 존 낙스(John Knox, 1513-1572)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세워졌고(1560년 12월 20일 목사 6인과 장로 36인으로 조직됨). 또한 영국에서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헨리 8세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영국 국교회(성공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고도 완전한 종교개혁을 계속하여 추구하였다.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 감독교회, 개혁파 장로교회, 그리고 독립파 회중교회 등으로 나뉘어 교리와 예전, 그리고 교회 정치에 있어 서로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청교도들을 핍박하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영국 왕이 되어 제임스 1세(재임기간, 1603-1625)가 되었을 때,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으로 무장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개혁을 기대하고 계속하여 청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입장을 바꾸어 왕권 신수설에 기초한 절대군주주의를 신봉하여 왕권의 신장을 위해 장로제도보다는 감독제도를 더 선호함으로써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교회를 핍박하였다. 뒤이어 왕이 된 찰스 1세(재임기간, 1625-1649)는 더욱 청교도들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를 사용하도록 스코틀랜드 교회에도 강요하자 반란이 일어나 오히려 영국이 스코틀랜드에 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차례 교회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왕이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인해, 마침내 영국 장기의회(Long Parliament)는 자신의 권위로 대륙

의 개혁파 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일치하는 교리, 예배, 그리고 권징에 대한 표준문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1643년 6월 12일 교회의 총회 소집을 명령하였다. 이 때 의회의 상하 양원은 국왕의 의사에 반하여 감독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고, 국내에서 교회의 평화를 이룩하고 보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스코틀랜드 교회 및 국외의 다른 개혁교회와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교회의 교리와 정치제도를 수립하기를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신학자 총회가 소집되었는데, 총 151명의 대표 가운데 30명 평신도 사정관(상원 10명, 하원 20명)과 전국 각지에서 선출되어 모인 121명의 신학자와 성직자들로 구성되었다.



AD1647년에 처음 발간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지 제목을 직역하면 “성직자들의 겸손한 도움말”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장로교 소속이었고, 2-3명의 감독교회 및 약간의 회중교회 목사를 포함했으며, 이외에도 신앙고백서 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 6명(목사 4인, 장로 2인)이 더 포함되어 총 157명이 되었다. 이들은 1643년 7월 1일 개회일로부터 1649년 2월 22일 폐회할 때까지 약 5년 8개월

(1643. 7. 1 - 1649. 2. 22)에 걸쳐 무려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과 수많은 위원회별 소모임 및 기도회를 가졌다. 그 기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 결과물로서 1644년 12월에 먼저 <예배모범>과 <정치모범>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고백서>(1647), <대교리문답>(1647), <소교리문답>(1648)을 차례로 작성하여 내어 놓았다.

(2)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특징들

- 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였으며, 칼빈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고 표현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 ② 비교적 후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긴박하고도 논쟁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여러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의 성과들과 종교개혁 이후 신학적으로 발전된 내용들을 잘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아주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명료하고도 간결한 진술과 객관적인 신학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장로교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교파들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에서 신앙과 생활에 있어 표준문서로 널리 수납되어 사용되고 있다.
- ④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애초에 총 33장으로 이루어졌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필요에 의해 1903년에 34장(성령에 관하여)과 35장(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이 미국 장로교회에 의하여 첨가되었다.

(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구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제1문답-제38문답)는 신앙의 내용, 즉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제2부(제39문답-107문답)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즉 어떻게 믿음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과 삶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도적 정통신앙과 또한 그것을 재확인하고 재천명한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정통신앙의 유산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올곧이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올바른 정통신앙(Orthodox), 올바른 정통신학(Orthotheologia),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의 삶(Orthopraxis)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

어야 하겠다. (*) *Soli Deo Gloria!*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구성 》

제 1 부, 신앙의 내용 - 교리 (1-38문답)

- 1. 서론: 인간의 목적 / 1문답
- 2. 신앙에 대하여 / 2~38문답
 - (1) 성경에 대하여 (2-3)
 - (2)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그리고 하시는 일 (4~11)
 - (3) 인간의 죄와 타락 (12~20)
 - (4) 예수 그리스도 (21~28)
 - (5) 구원에 대하여 (29~36)
 - (6) 종말에 대하여 (37-38)

제 2 부, 신앙의 의무 - 실천 (39-107문답)

- 3.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 39~107문답
 - (1) 십계명 (39~81)
 - (2) 신앙과 회개 (82~87)
 - (3) 은혜의 방편 (88)
 - (4) 하나님의 말씀 (89-90)
 - (5) 성례: 세례와 성찬 (91~97)
 - (6) 주기도문 (98~107)
- * "교리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교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Keeping silent about dogma means denying dogma.)
- Maximus the Confessor -



<선교신학>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전망

배춘섭 교수(선교학, Ph.D.)



선교학 교수로서 수 년 동안 평신도 전문인 선교를 섬겨온 필자는 긍정적 전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교의 목적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인 선교사는 창의적 접근 지역(Creative Access Nations)의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선교를 할 수 없다. 공식적인 성직자로서 선교사의 입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접근 제한 지역들’(Restricted Access Nations)은 중국만이 아니다.²⁾ 따라서 LMTC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인 선교사들(Tent-making Missionaries)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략적 측면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혹은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됨으로써 선교를 저해하는 문화장벽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인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Long-term missionaries)와 함께 팀 사역 및 협력사역으로서의 사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 서구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 혹은 타종교의 교리로 인한 종교적 가치관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선교사들의 사역과 수고는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겠지만, 이 선교사역을 위해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LMTC에서 훈련 받은 후 선교지에 파송되어 장기 선교사들을 돕는 평신도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들(Short-term missionaries)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이 됨을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선교사를 위한 후원이 점차 감축되는 상황에서 전문인 선교사는 자비량 선교사(Self-Supporting Missionary)로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비량 선교사란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경제적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물론 선교지 및 직업에 따라 선교사가 모든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비량 선교사는 장차 파송교회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위축 되더라도,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데 상당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적으로 ‘상황화 선교’에 관해 강의할 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화의 신학적 근거이다. ‘타문화권에서 선교할 때 어떤 근거로 상황화를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

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필자는 항상 “성경의 권위”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기록한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한 저자가 되심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서의 기축은 항상 복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에 복음이 상황화가 되면 ‘상황화 신학’으로 변질되지만, 복음의 기준에 맞추어 문화를 맞추면 ‘상황화 선교’로서 놀라운 문화변혁과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상황화 시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이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선교사는 개인적 판단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 역사 약 2000년 동안 교회는 아주 중차대한 종교회의를 거쳤다. 현재도 신학적인 문제를 위해 교회지도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 그러므로 상황화는 단순히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상황화 선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상황화의 판단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주도한다.



의료선교

마지막으로, 선교경험과 선교훈련 중 무엇이 우위적 입장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가끔 선교 지원자들 중에 보면, 선교현장에 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선교훈련을 비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타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역해 보는 것이 단순히 책상에 앉아 지식적으로 선교, 문화, 역사에 관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같은 생각 때문인지, 그 분들은 배움에 관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같도록 만든다. 그러나 개린 반 뤼넨(G. Van Rheenen)은 말하기를, “선교의 기본훈련을 받지 않은 열심 있는 선교지원자보다, 문화와 선교에 관해 훈련받은 선교사의 실제 선교사역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한

다.



건축선교

이상과 같이 본 논고는 전문인 선교사와 상황화 선교의 중대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전문인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 그리고 상황화 선교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교회와 교단의 과제임을 깨달았다. 이제 전문인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 혹은 성직자 선교사’와 공조를 이루어 협력선교사로서 복음을 위해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선교목적에 의해 우리 교단은 각 지역의 숨겨진 세계관을 찾아 복음을 통한 변혁을 목적으로 선교지의 역사, 문화, 종교, 사회, 경제 등을 이해하여 복음이 그 문화권에서 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 교단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선교훈련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비전을 제시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잠정적 사역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사역자로 계속해서 길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교회들도 교단의 이와 같은 선교정책 및 목적과 이해를 같이 하여 오직 참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 국내외의 문화가 변혁되고 ‘영혼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온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세속화 된 신앙적 껍데기 속에서 진리 밖으로 나아가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본질적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훈련받는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학우들과 한국교회의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문학산책: 신앙시인의 시>

-步보

나무가 걸어간다

시인 이경아(문학박사 Ph.D.)

나무가 걸어간다.

한세상 살았던 몸을 나와 울을 지나쳐
 자주 싸우면서도 가까이 사는 나무에게로
 조금 떨어져 사는 덕에 싸울 필요 없는 나무에게로
 멀리 살아 늘 그리운 나무에게로

빈손으로 자신을 갈아엎는 힘.
 생색내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고 조용히 행하여지는
 저 고요의 내밀한 소용돌이.

삶의 내력 고스란히 거름 뿌리는 걸음

운무나 바람의 힘을 빌릴 때도 있다.
 저기, 언제부터인가 소식이 끊긴 나무를 향해
 땅 밑으로 깊이 바다 속으로 깊이 하늘 향해 더 깊이
 걸음 내딛는 거름 되어야 할 즈음,
 나무는 차라리 깊은 울림이 되어

천 천 히

스-미-어-들-듯-이

자신이 사는, 살게 될, 살아갈,
 이 나무 저 나무를 애뜻하게 바라보기도 하면서
 시침 똑 빼고 있다가
 나무의 눈에 비치거나 나무를 비추고 있는 나무의
 중심을 읽으며 파고든다.
 그, 나무에게로 들어간다.

또, 나무가 걸어간다.



十
‘서신원’은
‘서울성경신학대학
원대학교’의 준 말
임

<4월호>

<총장 칼럼>



교회 공동체와 나

권호덕 총장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의 교제하는 유기체라는 점에서 교회의 한자어는 원래 ‘교회(交會)’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자는 ‘교회(敎會)’이다. 아마 고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네스토리안 경교(景敎)가 당나라 때 중국에 전래되어 그 교인들이 매일 성경공부 하는 모습을 중국인들이 보고, 그 공동체를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기독교는 어디를 가나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계몽이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책의 종교인 기독교는 이상숭배 종교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런 ‘敎會’ 명칭은 교회의 본질을 제한시키는 흠이 있다. 교회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 이상의 중요한 내용을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적 차원에서 각자 영적인 주소를 인식하게 되고 각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일까? 기독교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의 일반 종교 공동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이 세상의 고등종교들은 모두 교조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 유교는 공자 등 유가들의 가르침, 모슬렘은 마호멧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 공동체로 형성되었지만, 단순히 그 가르침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을 이 시대에 부각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만일 기독교회 공동체가 다른

월간 서신원

제 4 호(vol.1-4)
편집인: 장석조 교수
발행인: 권호덕 총장
발행일: 2015 04 30
발행소: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종교 공동체와는 달리 독특하다는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 절대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우상들 사이에서 상대화되어 버린 나머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불경(不敬)인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하나님의 교회의 독특성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유일성과 탁월성을 배우고 확인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통교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나머지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주위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답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이단들도 자기들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명칭으로 명명한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는 교회 풍토가 혼미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교회론에서 특별하게도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논했는데 그 만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회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가 건전한지 않는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기존 정통 교회들도 자기들의 교회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점검하는 기준도 교회의 속성에서 알아 볼 수 있다.

교회의 속성은 고대 교회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이나 기타 여러 신조에 포함되어 있다.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속성으로 ‘거룩한’(sanctam)과 ‘보편적 내지 우주적’(catholicam)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편적’ 교회는 우리말 번역에는 ‘공교회’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에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 고백한다. 17세기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은 ‘영원한’이라는 특성을 첨가했다.

요컨대, 교회는 1) 통일성, 2) 거룩성, 3) 보편성, 4) 사도성, 5) 영원성 등 다섯 가지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현 시대의 교회 상황을 바라다보면서 이런 속성들을 설명하며 참된 교회로 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하는 것이다.

<세상소식>

월드비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의 목소리” 전해 와

국제구호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네팔 대지진 발생 11일째인 5일 네팔 긴급구호 활동을 하면서 만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은 네팔 대지진 진앙지 고르카에서 차로 6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4일(현지시간) 칼파나(10)를 만났다. 칼파나는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더니 집안의 모든 물건이 떨어졌다”고 지진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집이 무너져 다리가 잔재에 깔렸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왔지만 다리는 부러진 상태였다. 칼파나 집뿐 아니라 마을 대부분의 집들도 무너져 내려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구급차로 고르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사흘이나 걸렸다.

칼파나는 가까스로 구급차에 타 병원에 도착했지만 침상에 올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병원에는 50개의 침상뿐인데 20만명의 부상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현재 칼파나는 병원 바닥에 임시로 침상을 마련해 치료를 받고 있다. 칼파나는 긴급구호팀에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책과 학용품이 무너진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슬퍼요. 친구들은 모두 무사할까요? 지진으로 학교도 모두 무너져 버렸는데,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고르카의 마을에서 구호물자 담요를 받은 시아(7)는 이제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 (월드비전 제공)

같은 날 긴급구호팀이 카트만두 월드비전 아동쉼터에서 만난 12살 소년 라제쉬는 “지진 당시의 충격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무섭다”고 했다. 이곳에서 라제쉬는 친구들과 뛰놀며 지진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아주 나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있

으면 나쁜 기억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려서 즐거워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죠?”(라제쉬)
월드비전은 네팔 대지진 직후 재난 지역에 시급한 방수포, 담요 등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동시에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치료를 위한 아동쉼터를 개소했다. 카트만두를 시작으로 라릿푸르, 박타푸르 등 7곳에 아동쉼터가 열렸으며 앞으로 2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일부터 나흘간 네팔을 다녀온 강도욱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은 “온 건물과 길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며 지진 피해 상황을 전했다. 그는 “뚫고 있는 잔해 밑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도 느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02-784-2004·worldvision.or.kr).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15 05 06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처처에 지진, 기근, 전쟁 등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다. 지금 지구 전체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을 보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졌음을 인식하고 경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저들을 돕는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6.25때 우리 나라에 쌀을 보냈다. 그들과 종교가 다르지만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저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 속에 사랑의 지체가 활성화 될 것이다.

<교계소식>



살롬나비, 2015년 어린이날 논평서

어린이들은 그 본연의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자라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린이들이 그 본연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이 부당한 대우에서 해방되어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념하는 날이다.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기념식을 가진 이후, 광복 후에는 5월 5일을 지정하여 이 날을 기념하여 왔다. 해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어린이날에는 고궁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무료 공개되고 어린이를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다. 어린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책임 있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지표로 어린이 헌장이 1957년 공포되고 1988년 새로 제정되었다. 11개 조항의 어린이 헌장의 주요취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소질과 잠재력이 개발되도록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창조적인 문화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날 이전에 비해 어린이의 인권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을 안타까움으로 보게 되고, 또 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유해한 사이버환경으로 어린이들의 정서와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을 우려하게 된다. 살툰나비는 미래의 국가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으로서의 어린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어린이들은 그 본연의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자라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2. 어린이들은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한다.
4. 한국사회와 교회는 어린이들이 그 본연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소파 방정환 선생 상(像)

<교단소식>

1. 본교를 위해 장학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루디아 장학회' 수련회가 팀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장학회 임원단은 영암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단: 회장: 김경순; 부회장: 오동훈; 서기: 김미란; 부서기: 홍미림; 회계: 황영숙; 부회계: 유순옥; 봉사부장: 김명숙; 봉사부부장: 박옥선, 이종배.

-주제: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강사: 오성은 목사(대흥교회) 오성은 목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강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촉구했다.

개회예배에는 총회장 권정희 목사가 설교했고, 김수현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했다.

<학교소식>

1. 보강을 전제로 하고 5월 4일은 휴일로 정하고 토, 일, 월, 화 연휴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
2.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스승의 날 행사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카네이션과 선물로 스승들에게 사랑을 표시했다.
3. 2015년 4월 25일(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거행되었다. 본교 교수들도 많이 와서 학문적인 잔치에 참여했다.
4. 5월 9일에는 장로회신학대학에서 "한국개혁신학회"가 '춘계 이종성 박사의 삶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교 교수 가운데 이동영 교수는 이종성박사의 삼위일체론을 비판적으로 발표했고, 배춘섭 교수는 선교학 분야에서 백석대 장훈태 교수의 논문을 논평했다.
5. 권호덕 총장은 4월 17일 10:00-14:00 '대학원대학교 총장회의'에 참석하여 당면한 '대학원대학교' 문제를 논의했다. 이 날 입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원대학교'가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건의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인체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함.
6. 정기적으로 대학특성화, 중장기 발전위원회 모임을 가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건물 일부



레위기 제 3장 주해

-화목제-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화목제(和睦祭, Peace Offering)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다. 화목제는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린다. 본장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화목제는 “보답하다, 배상하다, 속죄”를 의미한다. 화목제는 평안제, 수은제라고도 부른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는 제사이다.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에 드리는 번제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

2.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

첫째, 감사제(感謝祭)이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던 축복과 구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제사이다(레 7:12-15; 22:29-30). 둘째, 서원제(誓願祭)이다. 이것은 서원의 성취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이다(레 7:16-19; 22:18-25). 셋째, 낙헌제(樂獻祭)이다. 이것은 축복, 구원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다(레 7:16-18; 22:18-25).

3. 화목제의 세 가지 제물

화목제물은 번제물과 같은 종류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이다. 제물에 관한 법규가 비슷하지만, 생략하지 않고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절차와 형식이 모두 다 귀중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흠없는 수소나 암소(1절); 소는 인내와 충성을 상징한다. (2)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6절); 양은 순종과 겸손을 상징한다. (3) 염소(12절); 배척과 멸시를 받으며 마침내 버림받을 것을 상징한다.

4. 화목제의 절차

(1) 제사장은 제물을 잡은 후에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2절). (2) 콩팥과 그 기름, 간에 덮힌 꺼풀은 단 위에 불사른다(4-5, 14-15절). (3)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제물 바친 자가 성막 앞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레 7:15). (5) 제물은 삼일 후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제물을 삼일 후에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는다. 그 제물을 먹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레 7:18).

5. 화목제의 특징과 드리는 시기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레 7:15), 자원의 제사(레 7:15-16), 기쁨의 제사(신 27:7)이다. 화목제의 제물은 암수를 구별하지 않았다(레 7:1,6).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상호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데 의의가 있다(신 12:17-18). 화목제는 국가적 경축행사가 있을 때에 드렸다. 여호와와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삼하 6:15-19),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왕상 8:63-64), 화목제를 드렸다.

6. 화목제와 번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첫째, 같은 점은 피를 뿌린다는 점이다. 화목제도 번제처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은 후에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다(2,8,13절). 제물의 피와 하나님과 화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화목제가 성립되지 않는다(히 9:22).

둘째, 다른 점은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번제물은 반드시 생축의 수컷이어야 한다(레 1:3,10과 3:1,6을 비교하라). 번제의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화목제에서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남녀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교제로 화목할 수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7. 화목제를 드릴 때에 주의사항

첫째, 기름은 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3절).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기름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물은 이틀 안에 나누어 먹어야 한다. 제사 후에 고기는 거두어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온 식구가 모여 즐겁게 먹었다. 제물을 먹는 장소는 각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이 함께 먹어야 했다(신 12:17-19). 이것은 오늘날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배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교통이고, 수평적으로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위한 만남의 장소이다.

더 큰 믿음, 더 큰 역사!



전충현 목사(동천교회)

누가복음 17:1-10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회적 약자, 즉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촉구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2절) 이 말씀의 결국은 우리 주변에 더 이상 실족하는 이가 없었으면 좋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화 한 통이 그리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걸 그리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전화 한 통화! 여기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우리는 실의에 빠진 어느 한 생명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심입니다. 여기 이 관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실족하는 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무관심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3-4절) 이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는 거의 날마다 좌충우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제목의 책을 쓴 프레드 러스킨에 의하면 그것은 ‘평화의 느낌’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평화의 느낌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어진 채로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

은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를 결심하는데 용서가 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고기처럼 먹어본 사람, 말하자면 용사도 받아 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를 받아 본 사람들이지 않나요? 언제? 우리가 언제 이런 체험을 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들었을 때! 바로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용서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기 이 예수님의 용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들이 믿음을 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 이것이 나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이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더 이상 실족하는 이가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우리, 더 큰 믿음을 구하자고요. 여기 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역사의 주역이 되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를 위한 요한복음산책(2)



이재성 교수(Ph.D., 신약학)

계속되는 나의 이야기

1) 요한복음의 구조는 조금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다.

프롤로그(1:1-18), 본문(1:19-20:31), 에필로그(21:1-25)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앞으로 전개될 본문 전체를 미리 보게 해 주는 축소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브라운(R. E. Brown)은 프롤로그의 중요성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요한복음을 신약성경 문헌들 가운데서 가장 값진 진주라고 말한다면, 그 중 프롤로그는 요한복음 가운데서 진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Vol. I., 18.). 또한 호스킨스(Hoskins)는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복음서의 머리말이 아니라 복음서의 요약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더해 스몰리(Smalley)는 “요한복음의 첫 장은 전체적으로 제4복음서 전 장의 축소판인 것 같이, 아니 그 복음서와 관련된 전체 구원 역사의 흐름을 요약한 것 같이 보인다”(Stephen S. Smalley, *John Evangelist & Interpreter*, 김경신 역, 『요한신학』(서울: 생명의 샘, 2004), 143.)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 대해서는 수 많은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2) 그러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을 말한다. 이는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 요한복음 20장 30-31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요한복음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통합되는 히브리 문학의 전통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1:19-20:29)에서는 요한의 기록목적과 프롤로그를 통해 선언한 그 사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로 나타났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모델하우스라면 본문은 그 설계

도와 모형대로 어떻게 완전한 실체가 이 땅에 드러났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과 성취가 하나가 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구조의 아름다움이다.

3) 그렇다면 21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에 해당된다. AS라고나 할까, Recall Service라고나 할까! 좌절하고 실망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종결된다. 요한은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되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본문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는 20장 30,31절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밝힘으로 모든 그의 글을 마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에필로그는 다소 생뚱맞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21장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은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런데 너무 심한 과장이 아닌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연수가 33세, 이것을 분, 초 단위로 기록한다 한들 어찌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며 끝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에필로그인 것이다.

베드로! 그는 누구인가?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요한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른 새벽, 디베랴 바닷가까지 실망한 베드로와 동료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결국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속에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며, 그것이 요한복음이 에필로그를 통해 제공하는 멀리가는 향기, 은은한 감동, 가슴 벅찬 희열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결국은 그 복음서 끝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또 다른 베드로로 오늘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수 밖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살

‘미래한국’ 497호(2015.4.29.-5.12)



이종운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서울교회 원로목사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사회에서 자살자가 급증하여 2003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추월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 평균 43.6명, 33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면 나도 자살하겠다는 풍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반(反)비례하여 정신적 황폐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나,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교회 지도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종교가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교회마저 성장병(病)에 걸려 헤매는 중에 개개 영혼의 소중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이다.

교회는 자살자나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싸매주기보다 비난과 정죄부터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을까 하는 동정의 마음보다는, 자살자는 지옥 간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랑 없는 도덕적 훈계와 율법주의적 정죄를 일삼아왔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자살자를 불신자(不信者)로 단정하고 정죄하면서 장례식 집례도 꺼린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거나 위로하기보다 불신자로 속단하고 지옥자식으로 정죄한다. 교회는 외적(外的)으로 나타난 증상만 보고 내면의 심층적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 자살이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께 대적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살 방지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는데, 자살자는 고해성사를 할 수 없으니 지옥으로 갔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즉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죽음의 양태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증거라 할 수 없다. 죽기 전 회개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돌연사로 회개를 미처 못한 죄를 안고 죽는 경우가 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본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에서 제외시키거나 보류 또는 연기시키지 않으신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비록 자살자라도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살과 구원이 관계없다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잘 못하면 자살을 충동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자의 90%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비판이나 저주보다는 예방과 치유 차원에서 목회자나 교회의 돌봄과 책임이 있다.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종교가 무력화됨에 따라 생겨나는 사회병리 현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 능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삼손, 사울 왕, 아히도벨, 시므리, 가룟 유다 등의 자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뚜렷한 가치판단이나 가르침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자살을 죄악으로 본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가 하면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했으나 구원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은 루터가 있고,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한 칼빈도 있다.

인생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케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살아야 한다. 자살은 궁극적 구원에 연계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

(futurekorea@futurekorea.co.kr)



20090811 http://blog.daum.net/heart2008



하나님은 누구신가? (4)

이동영 교수(조직신학, Dr. theol.)

1. 말씀의 신학이나, 경험의 신학이나?

성경계시가 형성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신현’^{Theophania}과 ‘행위’^{opera}와 ‘말씀’^{verbum}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때에 인간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계시를 계시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 성경계시가 형성되던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계시경험’^{Offenbarungserfahrung}은 구분할 수 있어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 계시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임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 개념’^{relative Begriff}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현과 행위(이적)와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지자나 사도들의 인간적 경험을 배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시’^{Offenbarung}와 ‘경험’^{Erfahrung}, 이 양자를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분리시켜서 양자택일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유다 벤 일라이^{Judah ben Ilai}는 극단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불과 얼음 중 하나를 택하는 것과 같다고 묘파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한 길로만 간다면 불에 의해서 불탈 것이고, 다른 한 길로만 간다면 얼음에 의해서 얼어붙을 것이다.³⁾

그러니 ‘계시신학’^{Offenbarungstheologie}이 맞느냐 ‘경험신학’^{Erfahrungstheologie}이 맞느냐의 문제를 설정해 놓고 양자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은 진리의 한 면만을 고집하는 극단적인 논리이고,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계시)이 필요하지만 또한 여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학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의식하고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는 ‘특별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적 사색’과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하나님 인식’^{cognitio Dei}과 ‘하나님 지식’^{scientia Dei}의 내용들은 경험적 국면들을 함의하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자체가 우리의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일정 부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위스 취리히대학교^{Universität Zürich}에서 가르쳤던 20세기 신학의 거장 중 한 명이었던 게르하르트 에벨링^{Gerhard Ebeling}이 어디에선가 지적했던 것처럼, 신학의 원리에 있어서 계시(말씀)^{Offenbarung}나, 경험^{Erfahrung}이나를 지나치게 나누어 대립시키는 것은 진리의 총체적 인식에 도달할 수 없는 양극단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 함에 있어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principium obiectivae}로서 ‘하나님의 말씀’^{verbum Dei}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여 사색할 때에,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역사하사 그것들을 ‘조명’^{illuminatio}하시는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illuminatio Spiritus sancti interna}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Objektiv}과 ‘주관’^{Subjektiv}, ‘계시’^{Offenbarung}와 ‘경험’^{Erfahrung}이 만나고 통합되는 곳에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 인식과 참다운 신학의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지난 세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에서 가르쳤던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릿 베르까우어^{Geritt Cornelis Berkouwer, 1903-1996}는 하나님을 인간 및 세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성경계시에 의존하는 인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경험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인식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식^{Gotteserkenntnis}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상관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서 성경을 읽고 사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계시에 의존하여 사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색 속에 우리의 경험이 들어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말씀과 경험을 너무 날카롭게 나누어서 극단적으로 말씀이나, 경험이나의 양자택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경험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생동감 있는 신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경험을 두부 자르듯이 양자택일로 몰고 가는 것은 신학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특별계시에 의존하는 사색을 통해서 신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사색 속에는 우리의 경험이 들어와 있기 마련이니까요.

말씀의 신학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신앙체험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그러한 신학적 오류를 우리는 바르트^{Karl Barth}에게서 만나게 되는 반면, 인간의 신앙체험만을 강조하고 말씀을 배제하는 그러한 신학적 오류를 우리는 슐라이에르마허^{F. D. E. Schleiermacher}에게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 우리의 경험은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만 한다

말씀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논리적 순서로는 말씀이 먼저고 경험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씀과 경험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경험(체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종종 자기기만적이며, 심지어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Wien} 태생으로서 20세기 언어철학과 분석철학의 비조로 군림했던 위대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J.J. Wittgenstein, 1889-1951}은 자신의 저서 『논리철학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신학의 객관적인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왜곡시키고, 해소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경험을 배제한 채 말씀의 객관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차디찬 지성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삶의 정황 사이에는 해석학적 순환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경험이 해석학적 순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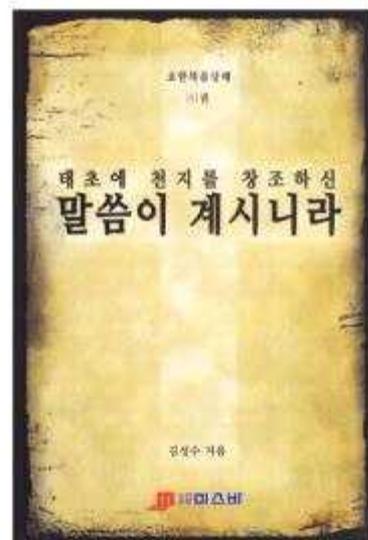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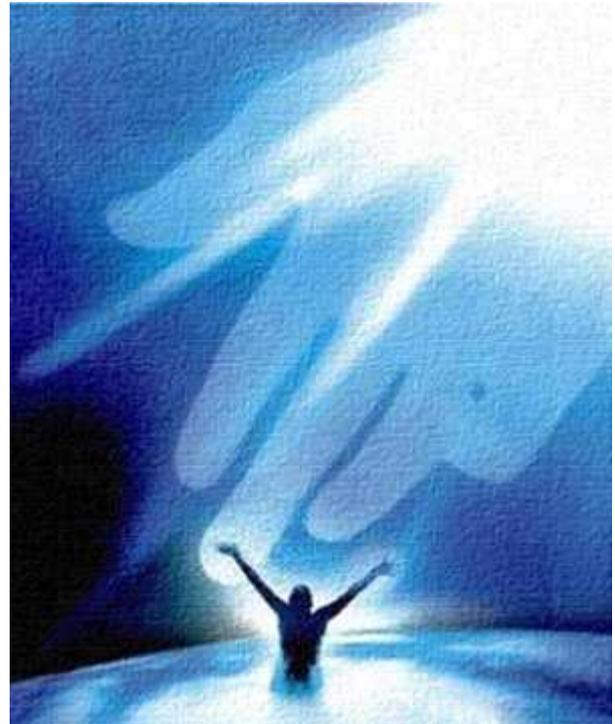
3. 성령의 내적 조명을 기도로써 간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살아있는 신학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써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신학을 하는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조명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겸손히 신학 작업을 수행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여 말씀과 경험을 날카롭게 나누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양자택일의 논리로 몰고 가는 것은 신학을 빈곤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과 우리의 삶을

가교하고자 하는 모든 해석학적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이 ‘성령의 내적 조명’^{illuminatio Spiritus sancti interna}과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를 기도로써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여 신학은 오직 신앙의 행위로서만 가능하고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인 것이지요.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신대원 학생들 사역>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기성 교회의 사역자로서도 일하지만 아래와 같은 복지 재단에서도 일하고 있다. 야간 2학교 최규진 전도사는 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아래 사진은 광야교회 담임목사 모습이다.

“사단법인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홈페이지 : www.kwangya.org, www.sagilsa.org 문의전화 : 02-2636-3722>



“사단법인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은 1987년부터 영등포 쪽방 촌에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자활·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힘써온 광야교회를 모태로서 2015년 2월 22일에 사단법인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주무관청의 법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광야교회를 중심으로 무료급식과 노숙인 자활시설 및 쪽방상담소를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1987년부터 영등포 쪽방 촌에서 쪽방주민들(현재 500여명)과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다. 노숙인 쉼터에서는 80여명이 공동체생활을 하며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쪽방상담소를 통해 쪽방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명희 목사는 87년도 4월 우연히 청량리 역에서 한 노숙인을 만난 약속으로 찾은 곳이 영등포 환락가 창녀촌이 있는 청소년 금지 구역으로 전과자. 부랑아 도피범죄인. 기동 서방. 마약중독. 알콜중독. 도박중독. 아바위 패거리. 폭력. 살인이 난무하는 우범지역에서 3평의 교회를 세우고 출발 하였습니다.(생략)

[광야교회의 주요 사역]

- 매일 3끼 무료식사 (하루 1200 ~ 1500인)
-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예배와 복음전도사역 (매일 11시 예배/ 자정12시 역전 전도예배/금요일 역전 찬양 전도 집회/토요 동네 찬양 전도.한 마디로 복음전파와 사랑 실천이 교회의 주된 사역 입니다.
- 무료진료 (서울 대학병원 기독 신우회, 아사모 침/안마봉사)이. 미용봉사. 의료지원 진료. 입원치료.
- 쪽방주민 상담 및 실태조사, 주민등록복원. 노숙인 장례 (현 200 여명을 넘었습니다)등...
- 기초 생활보장 상담, 장애인등록 /노인 치매 요양간병 사업.
- 사랑의 쌀 나누기, 가옥수선, 도배봉사
- 샤워실, 세탁실, 의류실 노숙인 커피숍 쉼터와 동네주민을 위한 “사랑방” 운영
- 취업알선사업/ 각종 자격증 교육/ 교육 (노인한글학교. 노

숙인 중/고등. 검정고시. 사회 복지사 양성 등)

- 사랑의 결혼운동(1:1,결연) 독거노인 과 쪽방 촌 주민, 쪽방 촌 주2회, 밀반찬 제공사업
- 무료합동결혼식. 2014년 현재14회째 50여 쌍 결혼 (신혼여행. 주거주택 보조비 지원)
- 광야인의 날(전국 노숙자초청/ 말씀 선포. 전도 / 잠바 나눔/ 믿음의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식사대접)

광야교회의 표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이다. 실제로 “광야교회”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운영됩니다. 이에 준하는 “5대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실천사항은 어떤 신학적인 사변이나, 공헌한 교리 논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광야교회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고, 또 실제로 광야교회의 대.외 적인 영향력과 달리 교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광야교회 실천사항>

첫째, “주다가 망하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망한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망하심으로 우리는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끝없이 주자는 의미입니다. **둘째,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입니다. 주님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쪽방동네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하기 어려운 꼴통들(사람들)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버티기를 잘하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없어도 참고 버티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 하리”라는 자세로 합니다. 또한 노숙인들 및 쪽방주민들은 대체로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여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큼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멈추지 마라”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이 모든 사역은 기도로만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후원 :

국민은행 014-01-0927-497 예금주 : 광야교회>



‘노숙인 의료 돌봄’, ‘노숙인 장례’, ‘오병이어 무료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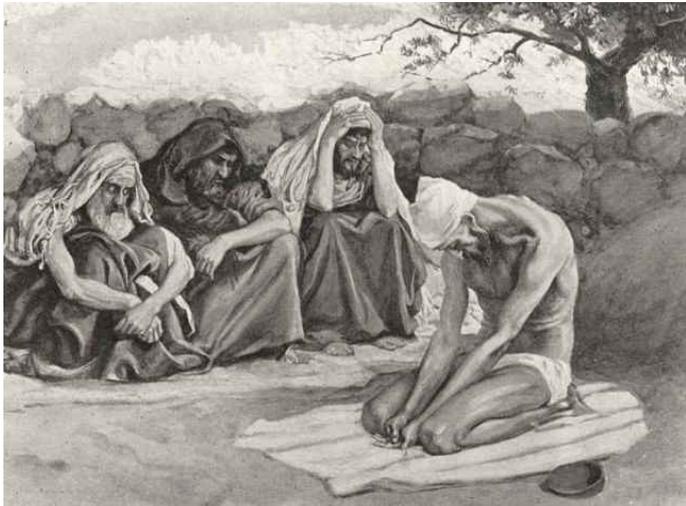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재앙”



박 영 준 교수(구약학, Dr.theol.)

하나님과 사탄의 첫 번째 대화 이후에 욥은 시험을 받는다. 이 시험은 욥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순수한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섬겼던 결과가 많은 재물과 행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지에 대한 것이다. 많은 복을 받은 욥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섬겼느냐(욥1:9, “까닭 없이”)는 사탄의 의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하신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1:12) 우선 욥은 그의 재산과 자식들을 잃는다. 1장 13절에서 19절에 걸쳐서 욥의 첫 번째 고난이 각각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묘사되어 있다.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네 재앙에 대한 묘사는 인간 재해와 자연 재해가 교차되어 묘사 되어 있으며(스바 사람, 번개, 갈대아 사람, 폭풍), 재난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천 마리의 소+오백 마리의 나귀, 칠천 마리의 양과 염소+종, 삼천 마리의 낙타+종, 자식들). 또한 특이한 점은 앞의 보고자가 그 재앙에 대한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다음 보고자가 보고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욥에게 고난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욥은 종들의 보고를 받는 중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종의 보고가 다 마쳐진 다음에야 비로소 이러한 네 개의 고난에 반응한다.



욥의 첫 번째 반응은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다. 겹옷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행사 때 입는 옷을 의미하며 찢었다는 것은 애도 의식을 나타낸다.

머리털을 미는 것 또한 고대 근동에서 흔한 비탄의 상징이었다. 앞의 두 가지 행동이 욥의 애도와 비통을 보여주고 있다면 나머지 두 개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 의식을 의미한다. 욥은 고난 중에도 침묵을 유지한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욥의 고백이 등장한다. 이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이고, 두 번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이다.

욥이 했던 첫 번째 고백에서 그가 모태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곳이 다시 어머니의 자궁은 아닐 것이다(요 3:4). 욥이 다시 돌아가리라고 했던 장소는 대지, 땅의 흙을 의미할 것이다(창 2:9; 욥 4:19-20; 시 103:14-16).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은 그의 경건이 그가 얻은 현세의 재물이나 자식의 복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장 8절의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욥의 고백은 전도서 5장 14절과 유사하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러한 전도자의 가르침은 인생의 허무함과 무익함을 직시하고 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디모데의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현세의 재물과 성공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현세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세 본문은 모두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현세의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앞서 봤던 욥의 고백이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이라면 욥이 했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인생이 즐겼던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손실과 슬픔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이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아래 이루어진다는 고백이다. 이와 같은 욥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은 이사야 45장 7절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욥이 얻었던 현세의 재물과 성공이 빛과 평안이라면 손실과 재앙은 어둠과 환난을 의미할 것이다. 결국 욥은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의인이었다. 두 개의 고백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욥의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현세의 성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재물과 손실의 모든 것에 대한 찬송이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욥의 행동은 적어도 현재 그가 매우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행동한다. 고난 중에 행한 욱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22절은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욱의 반응을 종합하여 보여 준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욱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사탄은 앞서 1장 11절에서 장담하였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이러한 사탄의 장담은 어김없이 빗나갔다. 욱은 하나님을 욱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였다. 지금까지 보았던 재앙이 닥쳤을 때의 욱의 태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계속되는 고난 중에도 말을 아끼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욱의 모든 행동(잔치 날에도 재앙의 날에도) 뒤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다.

했다.

2004년 처음 만들어진 이 몽타주는 이탈리아 경찰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시신을 감췄던 것으로 알려진 성의에 찍힌 이미지로 예수의 몽타주를 만들어낸 후 여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보통 경찰이 오랜 기간 잡히지 않은 범죄자의 과거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데 쓰는 기술을 반대로 적용해 턱 사이즈를 줄이고 코를 똑바로 바로 잡는 등 노화의 흔적을 지웠다.

이러한 몽타주 제작과정은 현재 5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토리노 성의 전시에 맞춰 이탈리아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곧 방영될 예정이다.

인디펜던트는 그러나 이번 몽타주가 토리노 성의의 진위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과학 저널 네이처에 소개된 논문에서 탄소 측정 결과 성의 속 이미지가 13~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의가 가짜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입력 국민일보 2015-05-06 16:12 수정 2015-05-06 16:14)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예수의 얼굴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53장은 그의 얼굴이 불 모양이 없었다고 한다.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그림 시장에는 예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 그림이 과연 예수의 참 모습일까?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모습을 그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기복음서는 12살 예수가 총명하고 지혜로

우며 통찰력이 있는 소년으로 묘사한다. 소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됨을 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거룩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외식자들에 대한 분노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런데 어떤 화가도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주님의 비하 모습이나 승귀하신 영화된 모습을 그릴 능력이 없다고 본다.

설교 메시지 개요와 흐름에 대한 제안

- 1) 욱의 첫 번째 고난(1:13-19)에 대한 의미(완전한 파멸, 커지는 재앙) 설명
- 2) 욱의 고난에 대한 태도(애도와 비탄, 하나님 경외와 예배) 설명
- 3) 21-22절에 나타난 재앙을 맞은 욱의 태도에 대한 신학적 의미 설명
- 4) 본문의 신학적 의도와 메시지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현세의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모든 것을 잃어도 욱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가?)
- 5) 가르침과 다짐(욕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

<허망한 시도>

열두살 예수는 어떻게 생겼을까...伊 경찰 몽타주 공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어린 시절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탈리아 경찰이 예수의 수의로 알려진 ‘토리노 성의’(聖衣)를 활용해 과학수사기법으로 만들어낸 예수의 12살 몽타주를 공개

개혁신앙의 기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해설(4)



김은수 교수(조직신학, Ph.D.)

개혁주의 장로교의 교리 표준: 웨스트
민스터 표준문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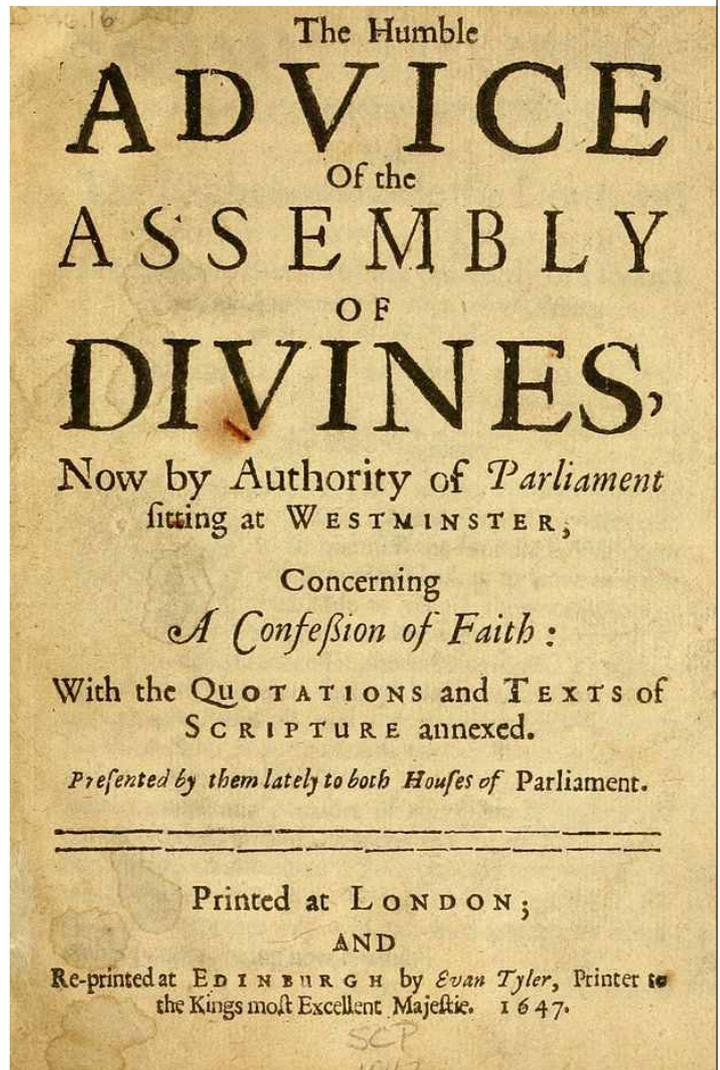
(1)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간략한 배경 역사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심히 부패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16세기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John Calvin, 1507-1564)의 헌신과 노력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놓여졌다. 나아가 그러한 칼빈의 신학적인 영향아래, 잠깐동안 제네바에 피신하였던 존 낙스(John Knox, 1513-1572)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세워졌고(1560년 12월 20일 목사 6인과 장로 36인으로 조직됨), 또한 영국에서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헨리 8세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영국 국교회(성공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고도 완전한 종교개혁을 계속하여 추구하였다.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 감독교회, 개혁파 장로교회, 그리고 독립파 회중교회 등으로 나뉘어 교리와 예전, 그리고 교회 정치에 있어 서로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청교도들을 핍박하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영국 왕이 되어 제임스 1세(재임기간, 1603-1625)가 되었을 때,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으로 무장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개혁을 기대하고 계속하여 청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입장을 바꾸어 왕권 신수설에 기초한 절대군주주의를 신봉하여 왕권의 신장을 위해 장로제도보다는 감독제도를 더 선호함으로써 인하여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교회를 핍박하였다. 뒤이어 왕이 된 찰스 1세(재임기간, 1625-1649)는 더욱 청교도들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를 사용하도록 스코틀랜드 교회에도 강요하자 반란이 일어나 오히려 영국이 스코틀랜드에 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

러 차례 교회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왕이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인하여, 마침내 영국 장기의회(Long Parliament)는 자신의 권위로 대륙의 개혁파 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일치하는 교리, 예배, 그리고 권징에 대한 표준문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1643년 6월 12일 교회의 총회 소집을 명령하였다. 이 때 의회의 상하 양원은 국왕의 의사에 반하여 감독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고, 국내에서 교회의 평화를 이룩하고 보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스코틀랜드 교회 및 국외의 다른 개혁교회와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교회의 교리와 정치제도를 수립하기를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신학자 총회가 소집되었는데, 총 151명의 대표 가운데 30명 평신도 사정관(상원 10명, 하원 20명)과 전국 각지에서 선출되어 모인 121명의 신학자와 성직자들로 구성되었다.



AD1647년에 처음 발간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지 제목을 직역하면 “성직자들의 겸손한 도움말”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장로교 소속이었고, 2-3명의 감독교회 및 약간의 회중교회 목사를 포함했으며, 이외에도 신앙고백서 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 6명(목사 4인, 장로 2인)이 더 포함되어 총 157명이 되었다. 이들은 1643년 7월 1일 개회일로부터 1649년 2월 22일 폐회할 때까지 약 5년 8개월(1643. 7. 1 - 1649. 2. 22)에 걸쳐 무려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과 수많은 위원회별 소모임 및 기도회를 가졌다. 그 기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 결과물로서 1644년 12월에 먼저 <예배모범>과 <정치모범>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고백서>(1647), <대교리문답>(1647), <소교리문답>(1648)을 차례로 작성하여 내어 놓았다.

(2)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특징들

- 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였으며, 칼빈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고 표현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 ② 비교적 후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긴박하고도 논쟁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여러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의 성과들과 종교개혁 이후 신학적으로 발전된 내용들을 잘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아주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명료하고도 간결한 진술과 객관적인 신학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장로교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교파들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에서 신앙과 생활에 있어 표준문서로 널리 수납되어 사용되고 있다.
- ④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애초에 총 33장으로 이루어졌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필요에 의해 1903년에 34장(성령에 관하여)과 35장(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이 미국 장로교회에 의하여 첨가되었다.

(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구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제1문답-제38문답)는 신앙의 내용, 즉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제2부(제39문답-107문답)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즉 어떻게 믿음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과 삶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도적 정통신앙과 또한 그것을 재확인하고 재천명한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정통신앙의 유산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올곧이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체계적으로 공부함으

로서 올바른 정통신앙(Orthodox), 올바른 정통신학(Orthotheologia),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의 삶(Orthopraxis)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 *Soli Deo Gloria!*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구성 >>

제 1 부, 신앙의 내용 - 교리 (1-38문답)

- 1. 서론: 인간의 목적 / 1문답
- 2. 신앙에 대하여 / 2~38문답
 - (1) 성경에 대하여 (2-3)
 - (2)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그리고 하시는 일 (4~11)
 - (3) 인간의 죄와 타락 (12~20)
 - (4) 예수 그리스도 (21~28)
 - (5) 구원에 대하여 (29~36)
 - (6) 종말에 대하여 (37-38)

제 2 부, 신앙의 의무 - 실천 (39-107문답)

- 3.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 39~107문답
 - (1) 십계명 (39~81)
 - (2) 신앙과 회개 (82~87)
 - (3) 은혜의 방편 (88)
 - (4) 하나님의 말씀 (89-90)
 - (5) 성례: 세례와 성찬 (91~97)
 - (6) 주기도문 (98~107)
- * "교리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교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Keeping silent about dogma means denying dogma.)
 - Maximus the Confessor -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전망



배춘섭 교수(선교학, Ph.D.)

선교학 교수로서 수 년 동안 평신도 전문인 선교를 섬겨온 필자는 긍정적 전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교의 목적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인 선교사는 창의적 접근 지역(Creative Access Nations)의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선교를 할 수 없다. 공식적인 성직자로서 선교사의 입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접근 제한 지역들'(Restricted Access Nations)은 중국만이 아니다.⁴⁾ 따라서 LMTC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인 선교사들(Tent-making Missionaries)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략적 측면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혹은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됨으로써 선교를 저해하는 문화장벽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인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Long-term missionaries)와 함께 팀 사역 및 협력사역으로서의 사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 서구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 혹은 타종교의 교리로 인한 종교적 가치관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선교사들의 사역과 수고는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겠지만, 이 선교사역을 위해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LMTC에서 훈련 받은 후 선교지에 파송되어 장기 선교사들을 돕는 평신도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들(Short-term missionaries)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이 됨을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선교사를 위한 후원이 점차 감축되는 상황에서 전문인 선교사는 자비량 선교사(Self-Supporting Missionary)로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비량 선교사란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경제적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물론 선교지 및 직업에 따라 선교사가 모든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비량 선교사는 장차 파송교회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위축 되더라도,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데 상당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적으로 '상황화 선교'에 관해 강의할 때 평신도 전

문인 선교사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화의 신학적 근거이다. '타문화권에서 선교할 때 어떤 근거로 상황화를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필자는 항상 "성경의 권위"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기록한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한 저자가 되심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서의 기축은 항상 복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에 복음이 상황화가 되면 '상황화 신학'으로 변질되지만, 복음의 기준에 맞추어 문화를 맞추면 '상황화 선교'로서 놀라운 문화변혁과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상황화 시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이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선교사는 개인적 판단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 역사 약 2000년 동안 교회는 아주 중차대한 종교회의를 거쳤다. 현재도 신학적인 문제를 위해 교회지도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 그러므로 상황화는 단순히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상황화 선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상황화의 판단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주도한다.



의료선교

마지막으로, 선교경험과 선교훈련 중 무엇이 우위적 입장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가끔 선교 지원자들 중에 보면, 선교현장에 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선교훈련을 비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타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역해 보는 것이 단순히 책상에 앉아 지식적으로 선교, 문화, 역사에 관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같은 생각 때문인지, 그 분들은 배움에 관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같도록 만든다. 그러나 개린 반 뤼넨(G. Van

Rheenen)은 말하기를, “선교의 기본훈련을 받지 않은 열심 있는 선교지원자보다, 문화와 선교에 관해 훈련받은 선교사의 실제 선교사역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한다.



건축선교

이상과 같이 본 논고는 전문인 선교사와 상황화 선교의 중대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전문인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 그리고 상황화 선교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교회와 교단의 과제임을 깨달았다. 이제 전문인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 혹은 성직자 선교사’와 공조를 이루어 협력선교사로서 복음을 위해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선교목적을 위해 우리 교단은 각 지역의 숨겨진 세계관을 찾아 복음을 통한 변혁을 목적으로 선교지의 역사, 문화, 종교, 사회, 경제 등을 이해하여 복음이 그 문화권에서 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 교단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선교훈련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비전을 제시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잠정적 사역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사역자로 계속해서 길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교회들도 교단의 이와 같은 선교정책 및 목적과 이해를 같이 하여 오직 참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 국내외의 문화가 변혁되고 ‘영혼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온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세속화 된 신앙적 껍데기 속에서 진리 밖으로 나아가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본질적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훈련받는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학우들과 한국교회의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문학산책: 신앙시인의 시>

-步보

나무가 걸어간다

시인 이경아(문학박사 Ph.D.)

현재 서신원 신학석사 과정

나무가 걸어간다.

한세상 살았던 몸을 나와 울을 지나쳐
자주 싸우면서도 가까이 사는 나무에게로
조금 떨어져 사는 덕에 싸울 필요 없는 나무에게로
멀리 살아 늘 그리운 나무에게로

빈손으로 자신을 갈아엎는 힘.
생색내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고 조용히 행하여지는
저 고요의 내밀한 소용돌이.

삶의 내력 고스란히 거름 뿌리는 걸음

운무나 바람의 힘을 빌릴 때도 있다.
저기, 언제부터인가 소식이 끊긴 나무를 향해
땅 밑으로 깊이 바다 속으로 깊이 하늘 향해 더 깊이
걸음 내딛는 거름 되어야 할 즈음,

나무는 차라리 깊은 울림이 되어

천 천 히

스-미-어-들-듯-이

자신이 사는, 살게 될, 살아갈,

이 나무 저 나무를 애뜻하게 바라보기도 하면서

시뻘 뚝 빼고 있다가

나무의 눈에 비치거나 나무를 비추고 있는 나무의
중심을 읽으며 파고든다.

그, 나무에게로 들어간다.

또, 나무가 걸어간다.



1) Abot de-Rabbi Natan, chap. 28.
2) 참조) 10/40 창(Window)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아프리카로부터 중동을 지나 아시아까지 뻗어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띠모양 지역의 국가로서 회교권, 힌두교권, 불교권의 국가들을 말한다. 전 세계 빈민의 82%와 저개발 국가가 10/40 창에 모여 있으며, 전통적인 성직자로서의 선교사는 접근을 제한 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3) Abot de-Rabbi Natan, chap. 28.
4) 참조) 10/40 창(Window)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아프리카로부터 중동을 지나 아시아까지 뻗어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띠모양 지역의 국가로서 회교권, 힌두교권, 불교권의 국가들을 말한다. 전 세계 빈민의 82%와 저개발 국가가 10/40 창에 모여 있으며, 전통적인 성직자로서의 선교사는 접근을 제한 받는 지역이기도 하다.